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유형별 네트워크 구조 분석

마은경*
김경화**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부산·경남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네트워크의 밀도 지수는 0.67에서 0.23사이로 클라이언트 의뢰와 정보교환 네트워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간분야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상호협력 체계가 필요한 공동협의, 정기간담회, 판로 및 시장개척 네트워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둘째, 연결중심성은 내향과 외향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교환, 클라이언트 의뢰, 정기간담회, 자원교환, 공동협의에서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았지만 판로 및 시장개척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셋째, 매개중심성은 연결중심성과는 달리 내향과 외향의 매개역할을 하는 중심기관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연결정도가 많은 기관이 반드시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네트워크 구조, 지방자치단체

I. 연구의 필요성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빈곤율,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관련 사업이 노인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노인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1기(2004-2008)와 2기(2008-2012)의 사업과정을 거치고 있다(기영화, 2013). 2013년 제3기에 접어든 노인일자리사업은 2012년 말 기준 243,249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2) 매년 지속적인 양적성장과 함께 사회·경제적 효과와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효과(이석원, 2009), 노인의 삶의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증진 효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7)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이 정부의 일자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전체 노인의 4.3%만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 주저자

** 교신저자

있어(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2), 현실적으로 노인세대들의 높은 일자리 참여욕구를 실현하기에 충분한가에 대한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자기개발과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들 스스로의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Schaic & Schooler, 1998).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3)의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에서 나타난 2012년 노인일자리 창출실적을 보면 전체 243,249개의 일자리 중에서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대 경비를 전액 지원을 받은 공익형은 143,478개, 교육형은 27,505개, 복지형은 46,727개로 공공분야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89.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운영비만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이 없는 비예산 부문인 시장형은 16,101개, 인력과건형은 9,349개, 창업모델형은 89개로 전체 일자리 중에서 민간분야의 일자리는 10.5%로 정부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공익형 일자리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일자리의 다양성 및 전문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보의 폐쇄성과 시장형 일자리의 매출 취약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남기철, 2009).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일자리는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로 출발했지만 다양한 유형의 노인적합 직종 일자리가 개발되지 못함으로써 일에 대한 노인의 욕구충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2).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민간 중심 사업이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성과 지속적인 참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일자리 유형에 관심을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공공분야의 사업기간을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였고 시장형의 사업 운영비 수준을 상향조정하여 민간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달체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 다양한 사업수행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간의 상호 협력체계 부족과 시장진출을 위한 판로개척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최성일 외, 2009). 이러한 현상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들이 상호 협력체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수행기관 자체의 한정된 자원만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쟁력에서 취약성이 전제되고 있는 인적 자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사업의 특성 상 시장 경쟁 정도가 낮은 보호된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호된 시장에 의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간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기관 간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지 않을 경우 노인의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이라는 복합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특히 지금의 노인세대는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이전의 노인세대와는 다른 베이비붐 세대로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21세기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충족과 서비스의 효과적 전달 측면에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김교정, 2009: 5). 특히 200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 사업’으로 인해 상호조직 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사회복지분야의 각 영역에서 네트

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박경숙, 2008; 김연아 외, 2008; 신현욱 외, 2011). 노인취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연구를 보면 사업수행자의 입장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 및 평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나 경제적 효과 분석, 참여노인의 삶의 질, 사회적 자본 효과탐색 등 사업수행 내용이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변재관, 2007; 황영주, 2012; 이석민·원시연, 2012; 최혜지, 2013; 기영화, 2013)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교환이나 클라이언트 의뢰, 자원교환, 공동협의, 판로 및 시장개척 등의 교환자원을 위해서 사업수행 기관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기관 간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기관 유형별 내향과 외향의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 순위는 어떠한지 등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유형별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사업 수행기관의 위계적 전달체계를 통해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전반적인 제도적 지원역할을 한다면 계획에 따른 수행정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의지나 노력 여하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사업에 관한 예산, 인력, 각종 행정적 지원이 달라 질 수 있는 구조여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박경하, 2013).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 추진 및 지원총괄, 수행기관 간 연계 및 조정 일자리 개발보급 등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내의 일자리를 총괄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수행기관 등을 선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32%정도의 공익형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기관의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센터 등에서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창업모델형 등의 일자리를 수행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주요기능을 보면 노인복지관은 노인을 대상으로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제공하는 노인일자

리전담기관이다. 노인복지센터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들에게 가사, 신체수발, 정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자활후견기관은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보건복지부, 2013).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으로 전국에 지회를 두고 구직을 희망하는 노인의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을 통하여 노인의 소득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면 <표 1>과 같다. 2010년 1,136개의 사업 수행기관이 참여하여 4,441개 사업단이 운영되었고, 2011년에는 1,214개 기관이 참여하여 5,014개 사업단을 운영하였다. 이는 2010년도 대비 78개 기관과 573개 사업단이 증가한 수치이다. 2012년도는 1,219개 기관에서 5,513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2011년도 대비 499개 사업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사업 수행기관을 보면 대한노인회가 206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복지관이 200개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178개 기관, 종합사회복지관이 172개 기관, 노인복지센터 160개 기관, 시니어클럽 104개 기관, 지역문화원, 자활후견기관 등 기타가 199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사업단수는 노인복지관이 가장 많은 1,411개 사업단을 운영하였고 시니어클럽이 1,127개 사업단, 대한노인회가 837개 사업단, 지방자치단체가 680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종교기관, 학교법인,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센터,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대한노인회 등 운영주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수행기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운영주체의 특성과 기관의 주요기능을 고려하지 않거나 수행기관들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상호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간분야에서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시장형이나 인력과건형 사업수행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수행이 용이한 공공분야에 한정되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표 1>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및 사업단 수 변화추이

| 수행기관 유형 | 2010년 | | 2011년 | | 2012년 | |
|------------------|---------|--------|---------|--------|---------|--------|
| | 기관수 | 사업단수 | 기관수 | 사업단수 | 기관수 | 사업단수 |
| 합계 | 1,136 | 4,441 | 1,214 | 5,014 | 1,219 | 5,513 |
| 지방자치단체 | 177 | 614 | 204 | 719 | 178 | 680 |
| 노인복지관 | 178 | 1,094 | 189 | 1,251 | 200 | 1,411 |
| 종합사회복지관 | 158 | 424 | 167 | 482 | 172 | 538 |
| 노인복지센터 | 153 | 278 | 160 | 317 | 160 | 342 |
| 대한노인회 | 201 | 763 | 208 | 818 | 206 | 837 |
| 시니어클럽 | 89 | 845 | 95 | 956 | 104 | 1,127 |
| 기타 ³⁾ | 181 | 423 | 191 | 471 | 199 | 578 |
| 수행일자리 사업량(%) | 216,441 | | 220,346 | | 243,249 | |
| | 공공 | 민간 | 공공 | 민간 | 공공 | 민간 |
| | 191,676 | 24,765 | 194,480 | 25,866 | 217,710 | 25,539 |

주³⁾기타에는 지역문화원, 지역자활후견기관, 실버인력뱅크 등 다양한 기관 포함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2010-2012). 재구성.

2. 노인일자리사업과 네트워크

현대사회는 네트워크 사회라고 지칭될 만큼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네트워크를 Barker(1995)는 개인이나 조직들이 기술이나 자원, 지식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연결체로 O' Toole(1997)는 둘 이상의 집단이나 조직 단위의 집합체로 제도적인 매개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상호의존적 구조로 네트워크를 정의하고 있다. Van de Ven and Ferry(1980)는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둘 또는 그 이상의 기관이 독자적으로 얻을 수 없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자원 즉, 클라이언트 의뢰, 재정, 물질적 시설, 기술적인 지원서비스 등을 교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류기형·류영미·박병현, 2009: 3 재인용).

일반적으로 관계망, 연계망 등의 용어로 이해되고 있는 네트워크는 둘 이상의 개인 혹은 집단의 체계화된 관계의 구조적인 형태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창출하는 과정이며,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수단(이준영, 2007)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는 정보 및 자원 획득효과와 네트워크에 속한 기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물질적 지원을 하는 효과가 있다(홍경준, 2002). 이러한 네트워크의 효과성으로 인해 사회과학에서 네트워크 개념은 1970년대 이후 조직간 관계 연구에서 중요한 분석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자리분야에서는 2000년 자활사업 실시 이후 네트워크의 개념이 등장하여 사업의 원활함과 성공을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네트워크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김영종 외, 2008).

노인일자리사업에서도 선행연구들은 사업수행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업 수행기관 간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김동배(2004)의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참여하는 네트워크가 형성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재관(2005)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수행기관 인프라를 시·도 단위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연계망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주섭 외(2007)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중복성과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의 부족을 지적하며,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박경하 외(2009)의 연구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이 개별사업단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시너지효과가 아주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노인일자리사업 특성 상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자원 교류와 판로 및 시장개척 등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효율적인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연계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해야 하는데 네트워크 구조를 잘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소는 밀도(density)와 중심성(degree centrality)이다. 손동원(2002: 55-56)에 따르면 밀도란 한 네트워크에서 행위자들 사이의 연결도를 의미한다. 즉, 네트워크 내 전체 구성원이 상호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표현하기 위한 개념으로 네트워크가 얼마나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다.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에 속한다는 것은 서로 끈적한 유대관계를 가진 집단에 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기관들로

부터 협력과 지원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손동원(2002)은 한 행위자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로 중심성을 보는데 외향중심성과 외향중심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내향중심성은 교류방향이 외부 기관에서 내부 기관으로 들어오며, 외향중심성이란 기관 내부에서 외부 기관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즉, 내향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다른 외부기관들로부터 상호 관계를 맺고 싶은 기관으로 먼저 선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기관이 외향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외부의 다른 기관들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중심성은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어느 기관이 중개자 혹은 다리(bridge) 역할을 수행하느냐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즉, 기관들이 상호 연계나 협력, 정보교환 등을 하기 위해서 꼭 그 기관을 거쳐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중심성 측정은 전체 네트워크 구성원들 사이의 정보흐름이나 자원교환에 있어서 중요한 중개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러한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의 개별 기관의 위치를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다. 즉, 한 기관이 다른 기관들로부터 연계의 대상기관으로 선택되는 빈도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조직이며, 전체 네트워크에서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게 된다. 이상 본 연구에서는 손동원(2002)이 제시한 밀도와 중심성 개념을 사용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유형별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분야에서 네트워크 구조분석은 자활후견기관, 장애인복지조직, 장애인고용, 직업재활기관 등을 대상으로 밀도와 중심성과 같은 네트워크 정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현주(1997)는 장애인복지관련 조직을 대상으로 밀도와 기관의 종류와 운영주체에 따른 상위 순위기관의 중심적인 역할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기관들 중에서 복지관이 운영주체별에서는 종교기관이 중심자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김인숙·신은주·김혜선(1999)의 밀도와 중심성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밀도를 통해 클라이언트 의뢰는 매우 높지만 기관 공동프로그램 운영의 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차 기관인 쉼터, 상담소, 1366의 기관들이 연결망의 중심조직에 있었지만 정부기관들은 연결망의 주변부에 위치하여 정부기관들은 네트워크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창현(2001)은 노인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영리조직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클라이언트 의뢰 네트워크가 가장 활발하였고, 매개성에서 정부기관이 중심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김인숙 외(1999)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었다. 홍경준(2002)의 자활후견기관 대상 연구에서는 자원교환, 클라이언트 의뢰, 정보교환, 협의·조정, 판로개척에 따른 네트워크 밀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는데 그 중에서 정보교환이 가장 활발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클라이언트 의뢰는 가장 활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언아 외(2008)의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의 구조분석에서는 6가지 수준의 협력단계에 따라 네트워크 구조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수집 및 제공에서는 밀도가 가장 높았지만 기관 상호간의 가장 밀접한 협력을 요구하는 공동사업에서는 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고 중심성에서는 연계정도, 매개성 모두 공단지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현욱 외(2011)의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직업재활 네트워크 구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하고 정보교환이 높고 서비스의뢰, 자원교류가 보통수준이며, 협의조정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경상도의 경우 네트워크 활동이 전반적

으로 미흡하였는데, 그 중에서 정보교환 네트워크는 보통으로 나타났지만 서비스의뢰, 협의조정, 자원교류활동은 아주 미흡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정보교환이나 클라이언트 의뢰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관 간 협력강도가 높은 물적 자원, 공동사업에 대한 네트워크 활동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대상에 따라 또는 네트워크의 교환자원에 따라 서로 다른 네트워크 구조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간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교환, 클라이언트 의뢰, 정기간담회, 자원교환, 공동협의, 판로 및 시장개척 등 교환자원별로 밀도와 중심성을 분석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유형별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경남지역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체기관을 모집단으로 경계를 설정하였다. 이는 네트워크 분석의 초점이 행위자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하였으며, 187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0년 1월11일부터 2월25일까지 우편발송과 주 연구자가 직접 기관방문을 통해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102개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는 주 저자인 마은경(2011)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네트워크의 교환내용별 구조적 특성과 영향요인 연구의 자료수집 데이터 일부를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유형별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교환자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부재하여 노인일자리사업과 유사성을 가진 김재환(2004)의 자활후견기관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조분석에서 사용한 자원교환, 정보교환, 판로개척, 클라이언트 의뢰, 협의·조정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또한 박치성(2006)의 사회서비스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협력패턴 연구에서 사용한 정기모임을 교환자원 유형에 포함시켰다. 특히 정기모임은 아무런 사전 목적 없이 교환관계가 유지되는 정보교환과는 달리 이 두 관계는 현재 당면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교환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박치성, 2006: 36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치성(2006)에서 사용한 정기모임을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기간담회로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교환자원 측정도구는 ① 정보교환 ② 클라이언트 의뢰 ③ 자원교환 ④ 정기간담회 ⑤ 공동협의 ⑥ 판로 및 시장개척 6가지로 구성하였다. 먼저, 정보교환은 기관운영, 프로그램 관련정보, 조언, 아이

디어 등의 직접적인 접촉,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한 정보교환을 의미한다. 둘째, 클라이언트 의뢰는 전화, 팩스, 메일 등을 통한 노인들의 취업알선, 직업교육 등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의뢰, 참여노인들의 가족과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 의뢰 등이다. 셋째, 정기간담회는 지역협의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부 또는 정기적으로 간담회에 참여하는지 등을 의미한다. 넷째, 자원교환은 시설, 차량, 물자, 기자재 지원 등 물적 자원 교환, 후원금, 바자회 등의 자금교환, 자원봉사자, 직원 등의 교류 등을 의미한다. 다섯째, 공동협회는 각 단위사업의 공동프로그램, 공동교육, 공동프로젝트, 욕구조사, 기관 간 조정·협의·합의 등이다. 여섯째, 판로 및 시장개척은 제품을 생산하여 공동 판매 및 시장개척 등을 말한다.

네트워크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자원의 측정기간은 7개월로 한정하여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교환자원별 의뢰한 횟수와 의뢰받은 횟수를 기록하게 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기관들로부터 교환자원을 의뢰받은 횟수의 합은 내향으로 다른 사업수행기관에 자원을 의뢰한 횟수의 합은 외향으로 측정하였다. 내향과 외향의 관계 방향을 구분하는 것은 네트워크 내에서 내향에서는 중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외향에서는 중심자적 역할을 하지 않고 주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김영중 외, 2008).

3. 분석방법 및 분석단위

조사된 자료는 SPSS 19.0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형별 네트워크 구조의 밀도와 중심성 순위는 통계 패키지인 Net Miner 3.0을 활용하여 사회연결망 분석방법(Social Network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행위자가 맺은 관계를 파악하여 해당 집단의 구조적 속성을 연구하는 방법론으로 사회적 실체(Social Entities)들의 연결성(Linkage)과 이 연결성의 함의에 관심을 갖는다. 또한 사회연결망 분석에서는 행위자들 간의 결합된 단위를 관계도로 도식화가 가능하므로, 네트워크의 복잡한 구조적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Wasserman and Faust, 1994; 김재근·서인석, 2012: 424-425 재인용). 사회연결망 분석은 사회적 실체들(개인, 집단, 조직, 사건 등)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홍경준, 2002: 15)으로 연구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개별 기관들의 교환자원을 파악한 경우라도 이들을 집단화하여 집단 사이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이때 분석단위는 거시 단위인 집단관계망이 되는 것이다(김용학, 2007: 8).

지금까지 사회복지분야의 실증적 연구들을 보면 분석수준을 개별 기관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연구(정순돌, 2001; 김재환, 2004; 박치성, 2006; 김언아 외, 2008; 김교정, 2009)와 분석단위를 블록화하여 집단사이의 구조를 파악한 연구(유태균·김자옥, 2001, 김인숙·우아영, 2003; 이혜원·우수명, 2005; 박경숙, 2008, 류기형·류영미·박병현, 2009; 신현욱 외3, 2011)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단위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개별로 자료조사를 실시하였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은 개별 기관보다는 기관유형에 따라 자원교환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관 유형별(지자체,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센터, 자활후견기관, 일자리창출센터)로 집단화하

여 집단 사이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 기관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표 2>와 같다. 조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19.6%, 대한노인회 18.6%, 종합사회복지관 17.6%, 노인복지센터 16.7%, 노인복지관 12.7%, 시니어클럽 8.8%, 자활후견기관과 일자리창출센터가 각각 3%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설사업 수를 보면 없음이 전체 조사기관의 51.5%로 가장 많았고, 1개 사업 신설은 22.8%, 2개 사업 신설은 13.9%로 조사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만을 전담하는 직원 인력 현황을 보면 1명이 54.1%로 가장 많았고, 2명이 16.3%, 없음이 10.2%순으로 나타나 전담인력이 없이 기관 고유의 업무와 중복하거나 1명이 전담하는 경우가 전체의 6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조사대상 기관의 일반적 특성

| 구 분 | | 빈도 | % | 합계(%) |
|-------------------|-------------------|------|------|----------------|
| 노인일자리사업 기관유형 | 지방자치단체 | 20 | 19.6 | 102 (100.0) |
| | 노인복지관 | 13 | 12.7 | |
| | 종합사회복지관 | 18 | 17.6 | |
| | 시니어클럽 | 9 | 8.8 | |
| | 대한노인회 | 19 | 18.6 | |
| | 노인복지센터 | 17 | 16.7 | |
| | 자활후견기관 | 3 | 3.0 | |
| | 일자리창출센터 | 3 | 3.0 | |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직원 수 | 없음 | 10 | 10.2 | 98 (100.0) |
| | 1명 | 53 | 54.1 | |
| | 2명 | 16 | 16.3 | |
| | 3명 | 6 | 6.1 | |
| | 4명 | 3 | 3.1 | |
| | 5명 이상 | 10 | 10.2 | |
| | 노인일자리사업 신설사업 수 | 없음 | 52 | |
| 1개 | 23 | 22.8 | | |
| 2개 | 14 | 13.9 | | |
| 3개 | 4 | 4.0 | | |
| 4개 | 5 | 5.0 | | |
| 5개 이상 | 3 | 3.0 | | |

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유형별 네트워크 구조

1) 네트워크의 밀도

네트워크의 밀도 값은 0과 1사이에 분포하며, 0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며, 1은 모든 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손동원, 200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6개 교환자원의 네트워크의 밀도는 <표 3>과 같이 0.67에서 0.23사이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수행기관 간 모든 관계의 네트워크가 67.9%수준에서 23.3%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개 교환자원 중에서 클라이언트 의뢰가 0.67로 네트워크의 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보교환 0.66, 자원교환 0.50, 공동협의 0.33, 정기간담회 0.30, 판로 및 시장개척 0.23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교환자원 중에서 사업 수행기관 간 상호협력 관계의 강도가 낮은 클라이언트 의뢰나 정보교환은 어느 정도 상호 기관 간에 관계를 맺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상호협력 관계의 강도가 높은 판로 및 시장개척, 정기간담회, 공동협의는 네트워크의 밀도가 아주 낮게 나타나 상호 협력관계를 잘 맺고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수행기관 유형별 네트워크의 밀도

| 교환 자원 | 정보교환 | 클라이언트 의뢰 | 정기 간담회 | 자원교환 | 공동협의 | 판로 및 시장개척 |
|-------|------|----------|--------|------|------|-----------|
| 지수 | 0.66 | 0.67 | 0.30 | 0.50 | 0.33 | 0.23 |

2) 연결중심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들로부터 교환자원을 의뢰받은 내향 연결중심성 순위는 <표 4>와 같다. 정보교환에서는 8개 기관유형에서 대한노인회가 1순위로 다른 기관 유형들로부터 노인들에 대한 정보의뢰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종합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이며, 3순위는 시니어클럽으로 조사되었다. 6개의 교환자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이언트 의뢰, 정기간담회, 자원교환, 공동협의 4개의 교환자원에서 1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8개 수행기관 유형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계활동을 의뢰받는 것으로 다른 기관유형들로부터 교환자원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싶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로 및 시장개척에서는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자활후견기관, 일자리창출센터가 공동 1위로 나타나 다른 기관유형들로부터 가장 많이 의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센터는 판로 및 시장개척 네트워크에서 다른 기관유형들로부터 전혀 의뢰를 받지 않아 내향 연결중심성 지수가 0으로 나타나 다른 기관들로부터 내향 연계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 수행기관 유형별 내향 연결중심성 순위

| 구분 | 정보교환 | | 클라이언트 의뢰 | | 정기간담회 | | 자원교환 | | 공동협약 | | 판로 및 시장개척 | |
|---------|------|----|----------|----|-------|----|------|----|------|----|-----------|----|
|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 지방자치단체 | 0.71 | 2 | 1.00 | 1 | 0.57 | 1 | 0.71 | 1 | 0.42 | 1 | 0 | 0 |
| 노인복지관 | 0.42 | 4 | 0.57 | 3 | 0.28 | 3 | 0.42 | 3 | 0.14 | 3 | 0.14 | 1 |
| 종합사회복지관 | 0.71 | 2 | 0.71 | 2 | 0.28 | 3 | 0.28 | 4 | 0.42 | 1 | 0.14 | 1 |
| 시니어클럽 | 0.57 | 3 | 0.57 | 3 | 0.14 | 4 | 0.14 | 5 | 0.28 | 2 | 0.14 | 1 |
| 대한노인회 | 0.85 | 1 | 0.57 | 3 | 0.14 | 4 | 0.28 | 4 | 0.14 | 3 | 0 | 0 |
| 노인복지센터 | 0.28 | 5 | 0.42 | 4 | 0 | 0 | 0.28 | 4 | 0 | 0 | 0 | 0 |
| 자활후견기관 | 0.71 | 2 | 0.57 | 3 | 0 | 0 | 0.57 | 2 | 0.14 | 3 | 0.14 | 1 |
| 일자리창출센터 | 0.42 | 4 | 0.42 | 4 | 0.42 | 2 | 0.57 | 2 | 0.14 | 3 | 0.14 | 1 |

외향 연결중심성 순위에서는 <표 5>와 같이 정보교환과 클라이언트 의뢰, 정기간담회, 자원교환, 공동협약의 5개의 교환자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외향 연결중심성이 1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다른 수행기관 유형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로 및 시장개척에서는 자활후견기관이 1순위로 적극적으로 연계활동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와 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센터는 외향 연결중심성 지수가 0으로 판로 및 시장개척을 위해서 다른 수행기관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수행기관 유형별 외향 연결중심성 순위

| 구분 | 정보교환 | | 클라이언트 의뢰 | | 정기간담회 | | 자원교환 | | 공동협약 | | 판로 및 시장개척 | |
|---------|------|----|----------|----|-------|----|------|----|------|----|-----------|----|
|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 지방자치단체 | 1.00 | 1 | 1.00 | 1 | 0.57 | 1 | 0.57 | 1 | 0.42 | 1 | 0 | 0 |
| 노인복지관 | 0.42 | 4 | 0.71 | 3 | 0.28 | 3 | 0.42 | 2 | 0.28 | 2 | 0.14 | 2 |
| 종합사회복지관 | 0.71 | 2 | 0.57 | 4 | 0.42 | 2 | 0.42 | 2 | 0.28 | 2 | 0 | 0 |
| 시니어클럽 | 0.42 | 4 | 0.85 | 2 | 0.28 | 3 | 0.28 | 3 | 0.28 | 2 | 0.14 | 2 |
| 대한노인회 | 0.71 | 2 | 0.71 | 3 | 0.28 | 3 | 0.14 | 4 | 0.42 | 1 | 0 | 0 |
| 노인복지센터 | 0.28 | 5 | 0.42 | 5 | 0.14 | 4 | 0.14 | 4 | 0 | 0 | 0 | 0 |
| 자활후견기관 | 0.57 | 3 | 0.28 | 6 | 0 | 0 | 0.42 | 2 | 0.14 | 3 | 0.28 | 1 |
| 일자리창출센터 | 0.57 | 3 | 0.42 | 5 | 0.42 | 2 | 0.57 | 1 | 0.14 | 3 | 0.14 | 2 |

3) 매개중심성

매개중심성은 다른 기관들이 서로 연계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만 하는 위치로 매개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전체 네트워크 기관들 사이의 정보의 흐름과 자원교환에 있어서 중요한 중재역할을 수행

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유형별 내향 매개중심성 순위는 <표 6>과 같다. 먼저 정보교환에서 1순위는 대한노인회이며, 지방자치단체는 2순위로 내향 매개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복지센터, 자활후견기관, 일자리창출센터는 정보교환을 위한 매개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의뢰하는데 있어서 다른 수행기관들은 서로 대한노인회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연계를 맺고 있을 것을 볼 수 있다. 클라이언트 의뢰와 공동협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순위로 내향 매개중심성이 높았고, 정기간담회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자원교환에서는 노인복지관, 판로 및 시장개척에서는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내향 매개중심성에서 1순위로 나타나 자원교환을 의뢰하는데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수행기관 유형별 내향 매개중심성 순위

| 구분 | 정보교환 | | 클라이언트 의뢰 | | 정기간담회 | | 자원교환 | | 공동협의 | | 판로 및 시장개척 | |
|---------|------|----|----------|----|-------|----|------|----|------|----|-----------|----|
|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 지방자치단체 | 0.14 | 2 | 0.32 | 1 | 0 | 0 | 0.22 | 2 | 0.15 | 1 | 0 | 0 |
| 노인복지관 | 0.04 | 3 | 0.04 | 2 | 0 | 0 | 0.25 | 1 | 0.07 | 3 | 0.02 | 1 |
| 종합사회복지관 | 0.01 | 4 | 0.02 | 4 | 0.07 | 1 | 0.16 | 3 | 0.07 | 3 | 0.02 | 1 |
| 시니어클럽 | 0.01 | 4 | 0 | 0 | 0 | 0 | 0.01 | 6 | 0 | 0 | 0 | 0 |
| 대한노인회 | 0.19 | 1 | 0.01 | 5 | 0.02 | 2 | 0.02 | 5 | 0.09 | 2 | 0 | 0 |
| 노인복지센터 | 0 | 0 | 0.03 | 3 | 0 | 0 | 0.09 | 4 | 0 | 0 | 0 | 0 |
| 자활후견기관 | 0 | 0 | 0.03 | 3 | 0 | 0 | 0 | 0 | 0 | 0 | 0 | 0 |
| 일자리창출센터 | 0 | 0 | 0.02 | 4 | 0 | 0 | 0 | 0 | 0.01 | 4 | 0 | 0 |

외향 매개중심성 분석결과는 <표 7>과 같이 정보교환, 클라이언트 의뢰, 정기간담회, 자원교환, 공동협의에서 매개중심성 1순위는 지방자치단체로 나타났다. 즉, 다른 수행기관들이 서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을 위한 클라이언트 의뢰나 정보교환, 정기간담회, 자원교환, 공동협의를 위해 연계를 맺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인복지관은 정보교환과 클라이언트 의뢰, 자원교환에서 2순위로 분석되었다. 판로 및 시장개척에서 외향 매개중심성 1순위는 노인복지관이며, 2순위는 일자리창출센터로 판로 및 시장개척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의뢰하는데 다른 기관들을 연계하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수행기관 유형별 외향 매개중심성 순위

| 구분 | 정보교환 | | 클라이언트 의뢰 | | 정기간담회 | | 자원교환 | | 공동협의 | | 판로 및 시장개척 | |
|---------|------|----|----------|----|-------|----|------|----|------|----|-----------|----|
|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지수 | 순위 |
| 지방자치단체 | 0.37 | 1 | 0.31 | 1 | 0.28 | 1 | 0.38 | 1 | 0.50 | 1 | 0 | 0 |
| 노인복지관 | 0.05 | 2 | 0.06 | 2 | 0.01 | 4 | 0.07 | 2 | 0.03 | 4 | 0.07 | 1 |
| 종합사회복지관 | 0.02 | 3 | 0.00 | 5 | 0.02 | 3 | 0.06 | 3 | 0.17 | 3 | 0 | 0 |
| 시니어클럽 | 0.00 | 4 | 0 | 0 | 0 | 0 | 0.01 | 4 | 0.03 | 4 | 0 | 0 |
| 대한노인회 | 0.05 | 2 | 0.03 | 3 | 0.05 | 2 | 0 | 0 | 0.23 | 2 | 0 | 0 |
| 노인복지센터 | 0 | 0 | 0.03 | 3 | 0 | 0 | 0 | 0 | 0 | 0 | 0 | 0 |
| 자활후견기관 | 0 | 0 | 0.00 | 5 | 0 | 0 | 0 | 0 | 0 | 0 | 0 | 0 |
| 일자리창출센터 | 0 | 0 | 0.02 | 4 | 0 | 0 | 0 | 0 | 0.03 | 4 | 0.04 | 2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부산·경남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연결망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수행기관의 유형별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네트워크의 밀도는 0.67에서 0.23사이로 클라이언트 의뢰와 정보교환에서는 밀도가 높았지만 공동협의나 정기간담회, 판로 및 시장개척은 밀도가 낮게 나타났다. 즉, 공공분야 중심의 클라이언트 의뢰와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간분야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상호협력 체계가 필요한 공동협의, 정기간담회, 판로 및 시장개척 네트워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연결중심성은 내향과 외향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교환, 클라이언트 의뢰, 정기간담회, 자원교환, 공동협의에서 자원교환에 대한 의뢰를 받고 의뢰를 하는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지만 판로 및 시장개척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창출 목표달성을 위해 공익형 사업에만 집중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민간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자로서의 역할 수행 등의 행정적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보교환에서는 대한노인회가 내향과 외향 모두 중심자적 역할을 수행하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고 있는데 이는 대한노인회가 지역사회 내 노인 취업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구인 및 구직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판로 및 시장개척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센터는 다른 기관들과 판로 및 시장개척을 위한 내향과 외향에서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노인들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센터가 판로 및 시장개척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고, 공공분야의 일자리 중심의 사업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셋째, 매개중심성에서는 연결중심성과는 달리 내향과 외향의 매개역할을 하는 중심기관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내향 매개중심성에서 클라이언트 의뢰는 지방자치단체가 정

보교환은 대한노인회가 자원교환은 노인복지관, 공동협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간담회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판로 및 시장개척 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시니어클럽이 중심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기관들에게 매개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향 매개중심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로 및 시장개척을 제외한 다른 교환자원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었고, 판로 및 시장개척은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매개역할에 참여할 뿐 다른 기관들은 참여하지 않아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노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야 한다. 둘째, 지역특성 및 노인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개발 및 시장형 일자리 수요처 개발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집중되어 있는 공공분야의 일자리로는 장기적으로 노인의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공공시설 또는 유희지 무상임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중에서 노인적합형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판로 및 시장개척을 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 생산품을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광역 및 시·군별 노인일자리사업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점이 되어 클라이언트 의뢰나 자원교환 및 판로 및 시장개척 등에 대한 정보교환, 공동사업 등의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참여노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 만 전담하는 전담직원을 배치해야 하며, 노인의 특성에 맞는 적합 직종을 발굴하고 직업 상담을 통해 배치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노인일자리사업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직원이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이나 기업회계 실무교육, 마케팅, 리더십 교육뿐만 아니라 사업단을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경영컨설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업수행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상품 개발이나 우수상품 등에 대한 다양한 관측활동과 함께 공동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시장개척 및 판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상 본 연구는 자료수집이 부산·경남지역만을 한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네트워크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기영화. (2013). 지방정부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 자본 효과 탐색. 「지방정부연구」. 17(1). pp. 265-295.
- 김교정. (2009). 사회복지시설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부산 사회복지 개별기관의 네트워크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09 Vol. 9(6). pp. 309-324
- 김동배. (2004). 「고령자 취업 적합직종 발굴 및 수요청 개발 방안」.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 노인인력운영센터.
- 김언아·강용주·황수정·박치성(2008)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의 구조 분석 연구-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vol. 32. pp. 135-167.
- 김영중·홍현미라·이현주·이혜원·이민영·진재문. (2008). 「사회복지 네트워킹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용학. (2004). 「개정판 사회 연결망 이론」. 서울 : 전영사.
- 김인숙·신은주·김혜선. (1999).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 모델 개발. 「한국가족복지학」. 3호. pp. 63-90.
- 김인숙·우아영. (2003). 부천시 지역 여성복지 관련 조직의 네트워크 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53호. pp. 179-207.
- 김재근. (2012).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구조적 특성 분석. 「지방행정연구」. 26(3). pp. 409-438.
- 김재환. (2004). 자활후견기관간의 네트워크 특성과 네트워크 중심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주섭·이규용·박성재. (2007). 「일자리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2007 고용영향분석 평가연구 시리즈. 한국노동연구원.
- 남기철. (2009). 「노인일자리사업 1기의쟁점과 2기과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류기형·류영미·박병현. (2009).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동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3). pp. 1-31.
- 박경숙. (2008).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네트워크 구조-공공복지행정기관, 민간노인복지기관, 공공보건의관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vol. 35. pp. 245-269.
- 박경하. (2013).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과제 및 활성화 방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박경하·김경휘·강신옥·이소정. (2009).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의 잠재적 가치에 관한 연구-사회적 경제 원리의 적용 가능성 중심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박치성. 2006. 사회서비스 비영리조직들의 협력 패턴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0권 제4호. pp. 353-376.
- 변재관. (2005).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 전략」.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 보건복지부.(2013).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손동원. (2002). 「사회 네트워크 분석」. 서울 : 경문사.
- 신현욱·강병노·최영광·황성혜. (2011).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네트워크 구조비교·분석연구. 21(2). pp. 131-162.
- 유태균·김자옥. 2001.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간의 네트워크 특성 및 네트워크 상에서의 중심자적 역

- 할정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17(2). pp. 20-48.
- 이석원. (2009).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 건강증진효과 및 의료비 절감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이현주. (1998). 사회복지조직 구성원의 조직간 관계: 장애인복지 관련 조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혜원·우수명. 2005. 학교사회복지 관련 조직간 네트워크의 특성에 관한 연구-서울시 강서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 57(4). pp. 119-146.
- 정순돌. (2001). 재가노인을 위한 사례관리 네트워크 분석 : 부천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6(9). pp. 404-426.
- 최성일·손기영·서해정·정미화. (2009).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경기도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최혜지. (2013). 노인일자리의 고용유사성이 참여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5(1). pp. 247-270. 한국사회복지학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7).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 _____. (2012). 「2011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 _____. (2012). 「2012년 빈곤통계연보」.
- _____. (2013). 「2012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 홍경준. (2002). 전주지역 자활 관련 조직들의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 49. pp. 7-33.
- Barker, Robert L. (1995). *The Social Work Dictionary*. Washington, DC: NASW Press.
- O'Toole, Jr., L. J. (1997). *Treating networks Seriously: Practical & research-based agenda i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7(1). pp. 45-52.
- Schaie, W. & Schooler, C. (1998). *Impact of Work on Older Adults*,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Van de Ven and Ferry. (1980). *Measuring and Assessing Organization* *New York: A Wiley Intersciences Pub.* pp. 301-312.
- Wasserman, S. and Faust, K. (1994). *Social Network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4.

마은경(馬銀卿):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거제대학교 사회복지과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복지, 네트워크, 전달체계, 교육복지, 자원봉사, 성년후견제도이며, 최근 주요연구는 “성년후견제도와 사회복지”(2012), “유관사업 통합운영모델 개발 연구-경남 교육복지모델을 중심으로”(2013) 등이 있다(eun597@hanmail.net).

김경화(金景華):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 대학의 사회복지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복지정책, 청소년, 다문화가족, 장애인, 노동복지이며, 최근 주요연구는 “중학생의 새터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2012), “신체상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남녀 중학생의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2012) 등 다수가 있다(khkim@cu.ac.kr).

Abstract

Analysis of Network Structure according to the Types of Senior Job Project Execution Organizations

Ma, Eun Gyeong

Kim, Kyong Hwa

This study analyzed the network structure of senior job project execution organizations in Busan ·Gyeongnam Reg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network density index was between 0.67 and 0.23 and client requests and information exchange network were active. However, the network for joint discussion, regular talks, sales channels, and market exploration that need mutual cooperation to create jobs in the private sector was not active. Second, the connection-centeredness was highest for the local governments' information exchange, client request, resource exchange, and joint discussion in terms of both inbound and outbound, but they were not engaging in sales channels and market exploration. Third, it was found that medium-centeredness, unlike connection-centeredness, had different organizations serving as the medium for inbound and outbound, manifesting that the organizations with stronger connection do not always serve as the medium. Based on these finding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was suggested for the revitalization of senior job projects.

Key Words: Senior Job Project Execution Organizations, Network Structure, Local Government